



| 주제 해설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신 6:4).

이 시대의 여섯 가지 가치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여섯 가지 가치관이 있다. 첫째는 ‘물질주의’다. 이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물질주의에 빠진 자들은 ‘많이, 더 많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살아간다. 따라서 더 많이 가져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는 ‘이기주의’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 우리 문화에 특히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이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다.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극단적인 경우 가정도 포기할 수 있다. 이기주의의 ‘정의’는 무엇인가?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정의고, 반대로 불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불의다.

셋째는 ‘향락주의’다. 쾌락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찰나적인 쾌락부터 꽤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까지, 다양한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노세, 노세! 즐길 수 있을 때 노세!”라고 외치며 쾌락을 가져다주는 것에 빠져 있다. 이들은 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즐기는 것을 좇아 산다.

넷째는 ‘실용주의’다. 이는 써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도박이든 커닝이든 무엇이든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섯째는 ‘자연주의’다. 세상은 신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며, 모두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자연스러운 사랑 혹은 육체적 결합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치관을 지닌 자들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허구’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삶의 범주에서 하나님을 삭제한 채 살아간다. 마지막 여섯째는 ‘인본주의’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신본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본주의자들에게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너 자신이다.”

‘절대’는 절대로 없다?

앞의 여섯 가지 가치관은 대체로 서로 충돌하고 때로 평가 절하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각각의 의견이 하나의 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대 다양한 정치 세력의 모습과 비슷하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파를 나누어 다투었고, 서기관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반목하고 있었다. 또한 세리들과 열심당원들이 서로 비난하며 살았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종파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대목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는 것이다.

예수님 당대처럼 이 시대의 다양한 가치관 또한 각기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한 지점에서 서로 연합하여 의견이 일치한다. 바로 ‘절대’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다. 여섯 가지 가치관은 “절대는 절대로 없다!”라고 동일하게 외친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절대’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4-5).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많다. 일본의 수많은 카미사마, 인도의 시바신, 중동의 알라신, 우리나라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들까지.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신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만든 신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신 가운데 제일 나아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닌,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성을 이렇게 주장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길, 여러 개의 진리, 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포스트크리스천

현대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다. 포스트모더니즘 역시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포스트모더니즘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포스트크리스천’이다. 포스트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이 땅에 더 이상 크리스천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한 사회를 변화시킬 기능을 잃은 믿음, 혹은 그러한 종교인으로 전락한 수많은 크리스천을 ‘포스트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

포스트크리스천을 남녀 관계에서 사용하는 ‘양다리 걸치기’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두 명의 연인 사이를 오가며, 이것저것 재면서 교제하는 것을 ‘양다리 걸치기’라고 한다. 이 관용어의 미국식 표현은 ‘sitting on the fence’다. 이는 울타리 중간에 서서 발을 하나씩 걸치고,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지 재는 태도를 일컫는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이에 걸터앉아 있다. 울타리 양쪽에 다리를 하나씩 걸쳐놓고 하나님 쪽이 불편하면



세상 쪽으로 가고, 세상 쪽이 괴로우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삶을 살아간다. 상당수 크리스천이 절대적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너그러운 인격자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관용하고 타협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융통성 없이 믿으면 되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신 말씀을 잊었나?” 왜 그럴까?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및 방식이 당연히 불편하고, 또 불편해야 한다. 예컨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음주나 성적인 문제 등이 크리스천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친 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매우 많다. 어떤 이는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편한 일이 생길까 봐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밝히기 꺼린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인데, 신앙은 없어지고 종교만 남았다.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로 변질되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서 믿는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만 밑줄을 긋고, 그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간직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한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왕기 시대

현시대의 상황은 분열왕국 시대의 북 이스라엘 초기 약 80년간의 상황과 비슷하다. 사울과 다윗을 거쳐 솔로몬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통일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면서 둘로 쪼개졌다. 이후 분열된 남쪽 나라를 유다,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상인데, 열왕기상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분열’이고, 두 단어로 요약하면 ‘왕’과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40년을,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된 왕국 초기 약 80년간의 역사를 기록했다. 약 80년 동안 남 유다는 1왕조 4왕이 다스린다(르호보암,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 그런데 북 이스라엘은 같은 기간에 4왕조 7왕이 통치한다(여로보암 1세,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누군가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 이스라엘에서는 80년 동안 이러한 반역이 세 번이나 일어났다. 여로보암 1세부터 아합에 이르는 7왕의 역사는 열왕기상 후반부에 기록된 북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해준다. 이때의 북 이스라엘은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인 혼란과 고통이 극심했다. 또한 영적인 변절과 타락으로 점철된 시대였다. 열왕기를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된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우상숭배를 했던 그의 통치를 따라갔다는 것이다. 북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빠져들었다. 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시작된 영적 변절과 타락은 아합 시대에 정점에 다다랐다.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바알 숭배자가 되었다. 그들은 바알을 농경의 신으로 섬기면서, 바알이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준다고 믿었다. 그러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는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북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 목적, 정체성마저 잊은 채 바알 숭배자로 전락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북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참 신을 선택하고 그 분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려고 했다. 다시 말해, 엘리야 당대 사람들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려고 했다.

엘리야의 사명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영적,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다. 그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혜성처럼 등장한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찾아가 담대하게 선포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과 북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며,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한 것이다. 엘리야는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에 도전장을 내밀며 이렇게 외쳤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이름에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다. 즉 그의 이름에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과 삶을 통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전했다. 그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명을 완수한 뒤에 홀연히 사라졌다.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오른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

포스트크리스천은 자신에게 편리한 제3의 종교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즐거우면 되는 것 아닌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 과거 열왕기 시대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행복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시대의 엘리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재물이나 권세 혹은 쾌락이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삶과 행동으로 보여줄,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좇아,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정했다. 오늘날 포스트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진리다. 우리는 삶과 행동으로 이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다음세대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

엘리야의 삶과 행동으로 드러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올 여름, 한국교회와 교사, 그리고 다음세대를 통해 선포되기를 소원한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난 뒤에는 이런 신조어 하나가 생긴다면 좋겠다. “엘리야하라!” 이 동사에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삶의 태도가 담겨 있다. 이는 진정한 신앙이 위축되기 쉬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올 여름, 여호와만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



여호와만
참하나님!